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아하! 복식부기 이렇군요!”

정 윤 한 / 행정자치부 서기관

### 제2강 - 복식부기와 부자, 그리고 경영 마인드 함양

#### 1. 복식부기와 부자되는 원리

##### 1) 정주영 회장 이야기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현대 정주영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주인공 이름은 천태산, 배역은 차인표) TV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드라마 이름은 “영웅시대” 였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안다.

당시 필자는 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다.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과 효율성 제고, 차변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 즉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한 회계처리의 자동검증기능 등 회계학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가슴에 와 닿는 도입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웅시대의 한 장면을 보고 왜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해야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주영 회장은 집안의 가보 1호인 황소를 훔쳐 팔아 경성으로 올라온다. 그 분의 학력은 강원도 통천에서 서당 다닌 것과 송전소학교 졸업이 전부였다. 이후 정규교육을 받은 건 없다.

이후 여러 가지 독학도 하고 관심 있는 공부도 하였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소 판 돈으로 경성의 한 부기학원에 등록하는 장면이다.

당시 정 회장의 꿈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소 판 돈을 가지고 무작정 상경한 그였다. 조선 최고의 부자,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보자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던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최소한 그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부기학원에 등록하는 정 회장의 동기였다. 그 장면을 보고 필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부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록이자 성적표로서 회계가 기능하는 것이다.

## 2) Stock과 Flow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것인가? 복식부기는 쉽게 말해 특정 회계주체(개인, 기업, 단체, 국가 등의 단위)가 재정운영의 결과로 부자가 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기본적인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호에 우리는 재정운영과 재정상태로 보고서가 나뉘는 걸 보았다. 그 보고서에서 손익계산서(재정운영)의 수익과 비용은 일정기간의 거래의 합이다. 즉 하루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보여준다.

거기서의 수익과 비용은 일정기간을 상정한 기록인 것이다. 이것을 Flow(流量)라 한다.

한편 대차대조표는 하루의 마지막 시점의 기록이다. 즉 특정시점에 관한 정보이다. 이것을 Stock(貯量)이라 한다. 특정 기간의 거래(플로우)와 그 결과(스톡)를 보여주는 것이 복식부기 회계의 기본 목표다.

손익계산서(재정운영)				대차대조표(재정상태)			
비용		수익		자산		부채	
교통비	20,000	용돈	50,000	현금	12,000	현금서비스	60,000
식사비	20,000	주운돈	5,000	자동차	3,000		
술값	60,000			감가누계액	(1,000) 2,000	부채총액	60,000
감가상각비	1,000	수익총액	55,000	자산총액	14,000	순자산	-46,000
비용총액	101,000	순손실	46,000				
적자				자산 <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는 1년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Flow 측면의 기록이고 재정상태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결과로 나타난 Stock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다.

재정상태보고서(S) 2005. 12. 31 현재		재정운영보고서(F) 2006. 1. 1부터 2006. 12. 31 까지		재정상태보고서(S') 2006. 12. 31 현재	
자산	부채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재정 운영을 통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의 친구가 모 시중은행의 PB센터에 근무하는데 은행에 10억원 이상을 넣어 놓은 고객을 부자 취급 한다고 한다. 대략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30%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부자는 전체 자산 보유액이 대략 40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여간 이렇게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현금, 은행에 든 적금, 보통예금, 청약저축, 주식, 승용차, 아파트, 고향 땅,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스톡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일 것이다. 이 자산을 기초로 내가 일 년 동안(플로우) 월급, 이자 소득, 고향 땅에서 거둔 소출

등의 수익과 일 년 동안(플로우) 의식주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운영차액(순이익)이 생긴다. 이 순이익의 크기가 클수록 나의 자산은 증가되는 것으로 다음해의 재정상태(스톡)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기본 기능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항목에서 수익은 크게 하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수익의 개념적인 정의는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월급, 이자 수익, 사업수익 등의 각 항목을 크게 하는 것이다.

비용의 개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의 양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양이 가급적 작을수록 효율적으로 일한 것이다. 만일 경제적 이익도 없으면서 비용만 발생했다면 헛돈 쓴 것이다. 이것을 낭비라 한다. 가급적 낭비를 줄이고, 가급적 단위당 비용이 가져오는 수익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것이다.

“Flow 변수를 최대한 규모 있게 운영하여 결과로서의 Stock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 부자가 되는 기본 방법이다.

### 3) 기록습관

카네기(Dale Carnegie) 인생지침서에서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써서 바라봐라.” 라는 대목을 본 기억이 있다.

당시 필자는 신용불량이 될 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 그런데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가계부식 기록을 하었는데 극단적인 가정으로 현금서비스 100만원 받아서 먹고 노는데 날려 버리는 상황은 이렇게 기록된다. 현금서비스 100만원은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돈이 들어오므로 수입으로 기록되고 먹고 마시는 비용은 지출로 기록된다. 그 결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수지가 균형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이 단식부기 방식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인식이다.

수입 100만원(현금서비스)  
지출 100만원(먹고 놀기)  
수지 균형

아무리 기록을 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균형 있는 생활” 뭐 당장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안 든다.

한 번 복식부기로 기록해보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100만원 받을 때 현금(자산) 100만원 / 현금서비스(부채) 100만원으로 기록하고 먹고 놀 때 식음료비(비용) 100만원 / 현금(자산) 100만원으로 기록한다.

재무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재정운영보고서(F) 2006. 1. 1부터 2006. 12. 31 까지		재정상태보고서(S') 2006. 12. 31 현재	
비용 100만원	수익 0	자산 0	부채 100만원
운영차액 -100만원			순자산 -100만원

이 보고서에는 수익적 활동은 하나도 없다. 현금서비스가 마치 수익으로 인식되었지만 이는 단지 부채 조달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1년 동안에 방탕한 생활로 빚만 늘었다.

재무보고서는 특정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여러분은 어떤 제도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가?

## 2. 발생주의와 경영마인드

###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까지도 부자가 되기 위한(아니면 부자들의) 회계기록 방식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는 어떠해야 하는가

를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대비되어 나온 개념이다. 따라서 현금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現金主義會計(現金基準會計, cash basis accounting)란 수익은 현금을 받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비용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인식하는 기준이며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text{현금수입액} = \text{수익}, \quad \text{현금지출액} = \text{비용}$$

이런 현금주의 방식은 개인이 간단히 가계부를 쓰거나 관청회계의 경우 그해 들어오는 현금의 유출입에 의해 결산을 할 때 사용하는 회계방식이다.

한편 發生主義會計(發生基準會計, accrual basis accounting)란 수익은 획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이다.

이 경우 현금의 수지와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로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되었으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만 나갔더라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나 선급비용의 경우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개념의 예이다.

이러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특히 기간손익의 계산에서 특히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30억원인데 3년만 사용되고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극단적인 가정이지만)의 회계처리를 비교해 보자. 한편 이 건물의 1년동안의 운영비는 3억이고, 마지막 3년차에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퇴직하여 9천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현금주의나 발생주의의 경우 모두 매년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주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 비용과 기간별 손익이 인식된다.

현금주의에서는 그해 지출한 현금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01년 23억 적자, 2002년 7억 흑자, 2003년 6.1억의 흑자로 보고된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주의와 달리 비용이 인식된다. 건물의 취득원가가 30억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발생주의에서 비용의 개념은 특정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희생되어진 자원의 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수익	10억	10억	10억
비용	(건물 취득원가 30억) (운영비 3억)	(운영비 3억)	(운영비 3억) (퇴직금 0.9억)
	33억	3억	3.9억
손익	-23억	+7억	+6.1억

건물은 3년동안 사용되어지는 것이므로 30억이 첫 해에 모두 비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0억씩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해주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또한 이 건물에서 일했던 직원의 퇴직금은 매년 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인건비를 유보해서 나중에 퇴직금 형식으로 준 것으로 이미 01년부터 매년 인건비를 3천만원씩 지급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인식된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그 결과로 매년 3억 3천만원씩의 적자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기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수익	10억	10억	10억
비용	(감가상각비 10억) (운영비 3억) (인건비 0.3억)	(감가상각비 10억) (운영비 3억) (인건비 0.3억)	(감가상각비 10억) (운영비 3억) (인건비 0.3억)
	13.3억	13.3억	13.3억
손익	-33억	-3.3억	-3.3억

## 2) 행태의 차이

### (1) 현금주의 결산 - 단년도 회계방식

만일 위에서 예로 든 결산서가 지방의회에서 결산으로 제출된 것이라 하자. 이 경우 현금주의 결산의 경우 첫 해에 무려 23억 적자인 것에 대해 의원들은 추상과 같이 질의

를 통해 왜 적자가 났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때 공무원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거야 작년엔 모 의원님과 시장(군수, 구청장)님께서 함께 사자고 그래 가지고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면 상대방 의원은 “그래요? 아! 이게 그거 구만!” 하며 다음 사항으로 질의를 옮긴다.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음해에는 7억의 흑자이다. 이걸 보면 의원은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다. 왜 그런가? 현행 결산서는 소위 “2년 전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결산서” 이다. 2003년에도 흑자라 또한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 (2) 발생주의 - 다년도 회계방식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에서도 2001년도 결산, 2002년도 결산에서 “왜 적자냐?” 고 물으면 현금주의 결산처럼 “이거 모 의원님하고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사자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하며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도 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이 대폭 교체되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2003년 결산시 “이거 왜 적잡니까?” 하고 물으면 이 경우에도 “의원님하고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사자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 할 수 있겠는가? 이미 핑계 달 사람은 없고 이것을 구입했던 공무원만 외롭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것을 구입했던 공무원이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3) 행태

현금주의에서는 1년만 잘 넘어가면 되었는데 발생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현금주의는 선거를 의식해서 특정한 자산(예를 들어 경로당, 체육관, 독서실 등)을 일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쉽게 마련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용이 초기에 다 배분되고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만 계상함으로써 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식이다.

따라서 일부 낭비성 지출도 과감히 수행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발생주의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특정한 지출을 꺼리게 된다. 무작정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동안 현금주의에서는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로 지출의 형태를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보다는 막연히 투자적 지출이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자본 구입행위가 별다른 고려 없이 쉽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 3) 회계와 경영마인드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발생주의에서는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일정기간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라도 이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가 정당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특정자산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이 자산을 통해 산출되는 수익(공공재의 경우 편익, 만족도 등)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간별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이것을 구입했던 단체장이나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심판을 받고 담당공무원은 징계까지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편익(만족도)에 대하여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여하튼 과거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자산의 구입, 관리, 운영 방식에 커다란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산을 구입할 때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때, 그 자산을 구입하거나 만들고 또한 이미 구입한 자산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한다.

이것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게 되는 원리이다. 이같은 경영마인드의 함양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부를 증가시키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은 결코 헛돈을 쓰지 않는다. 반드시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다.

### 4) 에피소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내년도에 결산서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산부채의 실사와 시험운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지방공무원이 자산의 평가와 관련되어 필자에게 말해준 사례

이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취득원가가 한 100만원 정도였다. 설치비까지 해서, 100만원. 상당히 큰 돈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가격을 알고나니 버스표지판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100만원이나 하는데, 도대체 100만원의 가치를 부여하기에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단순히 녹슬어져만 가는 폐품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고 군정을 홍보하고 지도를 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뭔가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변화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물이나 운동장들을 일단 건설하고보자 식의 일을 해왔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도대체 얼마를 들여 건설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산 실사를 통해 그 내역이 드러나고 보니 얼마나 자산의 관리와 운영에 소홀함과 비효율, 낭비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통해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이란 시가 생각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산” 이란 시를 써야 한다.

내가 그에게 가격표를 붙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물건에 /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가격표를 붙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 🍷